

# 전주대 캠퍼스 폴리스, 몰카 불안감 해소 총력

### 경찰학과 재학생 20여 명 참여 전문 탐지 장비 동원, 수시 점검

전주대 경찰학과 동아리 캠퍼스 폴리스(이하 캠퍼스 폴)가 지난 5월 중순부터 교내 화장실과 다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대학가 몰래카메라 성추행 논란의 확산과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하고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다.

최근 피해자의 유형 및 범죄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여자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자화장실, 탈의실, 도서관, 강의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 곳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와 수법이 다양화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탐지 장비가 동원된다.

전과 탐지기로 1차 점검을 하고, 설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몰카 방지 근절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몰래카메라 설치를 막는다.

캠퍼스 부회장 김민경(20)씨는 "이번 점검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진행하게 됐다."라고 하며, "현재까지 발견된 몰카는 없지만 언제든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캠퍼스를 지도하고 있는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학생들의 이런 활동이 교내 학우들에 대한 불안을



전주대 경찰학과 동아리 캠퍼스 폴리스가 지난 5월 중순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 화장실과 다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주대 캠퍼스는 지난 2012년 원산경찰서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학과 재학생 20여 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소에는 교내와 학교 인근 원룸촌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민경, 박모옥, 안석주 학생이 원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김재훈 기자



농협은행 전북, '초등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금융이야기' 호응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7일 부안군 소재 창북초등학교 학생을 초청해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즐거운(fin) 금융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대적으로 금융교육의 혜택을 받지 어려운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을 NH농협은행 전북본부에 위치한 청소년 금융교육센터로 초청해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기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행사를 지원하고 함께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직접 은행원으로 변신해 통장 만들기, 예금 및 출금해보기, 세계화 및 금과 견학 등 은행에서 이뤄지는 실제 금융 거래를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전북지원 직원은 학생들에게 보드게임을 활용한 돈 모으기, 돈 쓰기 등의 합리적인 돈 관리 방법과 저축·투자의 기본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교육청, 금융감독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부안군선관위, 노인대학 등 3개 단체

정규 교과과정 '미니 투표함 만들기 체험' 가져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만형)는 선거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3개 단체(노인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정규 교과과정에서 1,027여 명을 대상으로 '미니 투표함 만들기 체험'을 가졌다.

부안군선관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 부안군 선관위에서 체험 자료를 제공하고 공동협약을 맺은 3개 단체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 선거 취약계층에 대한 선거 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년층에게는 치매예방을 다문화가족에게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어린이들에게는 두뇌개발이라는 1석 2조의 부수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부안군선관위는 미니 투표함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포상금 제도 및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투표 참여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체험을 통한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부안군민들의 선거의식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 무주경찰서-군청,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가 군청과 합동으로 무주군 대표 피서지중 하나인 구천동내 공중화장실 10여 곳을 돌며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렌즈탐지형 장비를 이용, 군청의 사회복지과 직원과 합동으로 구천동내 공중화장실 10여곳을 점검하는 한편, 피서철 성범죄 예방 홍보용 부채를 나눠주는등 성범죄 예방활동을 펼쳤다.

무주경찰서장 윤중섭은 "최근 5개년 성범죄 발생통계를 분석하여 무주군민의 맞춤형 성범죄 예방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피서철, 구천동 아와아영장 임시파출소 운영과 함께 성범죄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등 성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무주경찰서는 이달 20일까지 불법카메라 일제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을 원하는 기관은 무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홍보 활동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경우)는 천천면민의 날인 지난 5일 행사장 내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가졌다.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1년까지 총60억원을 들여

하늘내커뮤니티센터, 문화회관, 하늘내체육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다.

이날 면민의 날에 천천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공동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자리에서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주민 및 외부인사들에게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정읍 산외면 예코축산과 직원들, 산외에서 오디 수확 도와

산외면과 예코축산과 직원 30여명은 지난 5일 오후 1시간 인수씨의 오디밭(4,068㎡)에서 오디 수확을 도왔다.

한씨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내와 단 둘이 수확을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도와줘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서 청문실, 인권 존중 문화 분위기 조성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인권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경찰청에서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주요내용과 절차 등 안내하고 더불어 인권감수성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 토론회식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직원들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